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

세키네 히데유키**
sekine@gachon.ac.kr

<目次>

1. 들어가며
2. 도래인 연구의 개관
 2.1 문헌사학적 연구
 2.2 인류학적 연구
 2.3 고고학적 연구
3.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
 3.1 야요이시대의 도래인
 3.2 고분시대의 도래인
4. 마치며

主題語: 도래인(Immigrant), 국립역사민속박물관(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전시(exhibition), 야요이시대(Yayoi piriod), 고분시대(Kofun period)

1. 들어가며

한국 해방 후, 한국 합병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일본학계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직접적 관계를 기피하는 인식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고대의 한일관계는 혈연관계를 연상케 하는 '민족이동(migration)'의 시각을 배제하고 간접적 관계를 연상케 하는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의 시각에서 설명하게 되었다.[1] 일본학계에서는 바다를 건너 이주해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래인'이라고 하는 역사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민족이동의 시각을 배제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온 도래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위상을 낮게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는 도래인에 대한 인식을 개인 연구자의 학설이 아니라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때 도래인의 고지(故地)가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반도 도래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가천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GCU-2014-0177)
** 가천대학교 일본어문학과 교수
1) 세키네 히데유키(2007)「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연구와 패러다임」『민족문화연구』4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15-417

박물관에 관한 어떤 정의에 의하면, 그 역할이나 목적은 대중에게 교육의 장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으며 학교 교육의 대체적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2]고도 한다. 이에 따르면 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제공되는 지식체계는 역사교과서에 버금가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1년에 설치되어 '레키하쿠(歷博)'란 호칭으로 알려져 있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은 역사자료 22만점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는 일본사에 특화된 종합 박물관이다. 동시에 '대학 공동이용 기관'으로서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자 육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3] 명실 공히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식적 속성을 지니는 박물관의 지식체계에서 도래인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여기서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전시를 통해서 일본학계의 인식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연구자들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분야의 도래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자 한다. 이 박물관에서는 학제적 연구로 일본사를 규명하고 전시한다는 방침[4] 하에 고대 전시에는 문헌사학, 고고학, 인류학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서도 이 세 가지 분야에 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의 관점은 첫째 도래인의 고지를 한반도에서 찾고 있는지, 둘째 도래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셋째 도래인의 위상이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박물관의 전시는 설명적 정보가 없는 '물건전시'와 그림이나 텍스트로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전시'로 나눠지는데[5] 여기서는 고찰의 대상을 후자에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거기에는 정보전시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성안내도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포함한다.

2) デビット・ディーン(David Dean)(2004)『美術館・博物館の展示　理論から実践まで』丸善, pp.3-8
3) 国立歷史民俗博物館(2014)『国立歷史民俗博物館ガイドブック』一般財団法人　国立歷史民俗博物館振興会, p.2
4) 위의 책, p.2
5) デビット・ディーン, 앞의 책, pp.3-8

2. 도래인 연구의 개관

2.1 문헌 사학적 연구

역사용어로서의 도래인은 4세기에서 7세기경에 중국대륙 및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6] 문헌사학에서는 문헌이 남아 있어야 할 제약 상 주로 고분시대(4~7세기) 이후가 연구 대상이 되어 있다.

문헌사학의 도래인 연구는 '귀화인' 연구로서 시작되었다. 귀화인이란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화외(化外)의 나라에서 왕의 덕치를 사모하여 스스로 왕법 권내에 내투(來投)하여 복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중화사상에 따른 개념이다. 일본에서 이 용어는 율령국가를 지향했던 7세기에 중화사상을 차용해서 만들어졌다.[7]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편찬된 『일본서기』의 도처에는 귀화인에 관한 기록들이 산재해 있다. 게다가 근대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일본서기』의 기술을 편협한 국수주의나 군국주의적 역사관에 따라 해석하며 귀화인의 역사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8]

한편 이러한 견해와 달리 일제강점기에는 고구려, 백제 왕족과 같은 부여계 민족이 일본에 도래하여 고대 일본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연구자가 있었다. 그 제창자가 바로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 1871~1939)이다. 그의 '일선양민족동원론(日鮮兩民族同源論)'[9]는 동화정책에 이용됨으로써 세간의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당시의 국수주의적인 사학계의 정설과는 거리가 먼 견해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군국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났지만 과거의 역사관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었다. 소위 '임나일본부설'[10]에는 왜가 한국으로 출병함으로써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전후의 학계에 널리 정착되었다. 그 결과 도래인 연구는, 왜의 한반도 경영의 일환으로 귀화인이 일본을 왕래했다는 구태의연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래인의 위상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세키 아키라(関

---

6) https://ja.wikipedia.org/wiki/%E6%B8%A1%E6%9D%A5%E4%BA%BA(검색일, 2015.6.1)
7) 平野邦雄(2007)『帰化人と古代国家』吉川弘文館, pp.1-10
8) 関晃(2009)『帰化人-古代の政治·経済·文化を語る』講談社, p.3(至文堂, 1956)
9) 喜田貞吉(1979)『喜田貞吉著作集 第８巻 民族史の研究』平凡社, pp.412-415(「日鮮兩民族同源論」『歷史と民族』第6卷 第1號, 1920)
10) 그 근본적인 논리를 제공한 것은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이다. 末松保和(1949)『任那興亡史』大八洲史書, pp.1-272

晃, 1919~1996)는 고대사회의 진전이나 발전에 대해 귀화인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일본인의 10~20%정도는 귀화인을 선조로 두고 있다는 견해[11]를 발표하였다. 또한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1927~)는 도래인의 이주시기에 관한 가설[12]을 제시하였고 학계에서도 널리 수용되었다. 최근에는 과거의 야마토(大和) 왕권 중심의 고대한일관계사를 탈피하여 지방 세력도 독자적으로 한반도 국가와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시각에서 도래인의 실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다[13]

이와 같은 연구자들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주류학계라는 범위 내에서 거론된 것이었는데 이러한 주류학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도래인의 위상을 높게 쳐주는 연구자들 또한 존재했었다.

전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동양사학자인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1906~2002)는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고사기』·『일본서기』등에서 보이는 신화나 전승,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총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마민족설'을 발표하였다.[14] 이는 만주지역에 거주했던 부여계 기마민족이 한반도를 남하하여 변한을 기지로 삼은 다음 일본열도에 들어가 다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야마토 지방에 진출하여 조정을 수립했다는 학설이다. 에가미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마민족설은 기타(喜田)설의 현대판이지만[15] 그는 기타와 달리 고대일본의 지배자를 한민족이 아니라 보다 북쪽에 고지를 둔 부여계 기마민족에서 찾았다.[16] 에가미의 견해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류 사학자의 지지도 받아 한 때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의 반발을 사고[17] 서서히 지지자를 잃어갔다.

또한 1960년대에는 임나일본부설에 반발한 북한 사학자 김석형(1915?~1996)이 '분국론(分

---

11) 関晃, 앞의 책, pp.3-12

12) 우에다는 도래시기를 ① 한반도에서 대륙계 문화가 유입되어 야요이문화가 형성된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 ② 고구려와 전쟁을 하는 한편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했던 5세기 전후, ③ 백제가 고구려, 신라의 압박을 받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 ④ 백제가 멸망하여 왜가 백강구 전투에서 대패한 7세기 후반으로 분류하였다. 上田正昭(1967)『歸化人』中央公論社, pp.23-26

13) 田中史生(2005)『倭国と渡来人 -交錯する「内」と「外」-』吉川弘文館, pp.1-217

14) 石田英一郎·岡正雄·八幡一郎·江上波夫(1949)「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對談と討論」『民族學研究』第13巻 第3号, 日本民族協会, pp.240-245

15) 江上波夫(1967)『騎馬民族国家』中央公論社, p.157

16) 세키네 히데유키(2011)「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와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의 일본민족 기원론 -한민족(韓民族)의 민족이동을 중심으로-」『동북아 문화연구』동북아시아문화학회, p.627

17) 예를 들어 고분 시대의 전기 (2세기 후반-4세기)과 중·후기(5세기이후)의 사이에는 단절이 확인 되지 않는 점, 중국·조선·일본의 사서에 민족이동에 의한 정복 기사가 없는 점. 중국 사서에 7세기 까지 일관되게 왜(倭)로 인식되어 있는 점, 황실의 전통이나 전승에 유목문화에 관련된 것이 없는 점, 일본과 한국의 왕릉 형태에 공통성이 없는 점 등이 제기된 바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9%A8%8E%E9%A6%AC%E6%B0%91%E6%97%8F%E5%BE%81%E6%9C%8D%E7%8E%8B%E6%9C%9D%E8%AA%AC(검색일 2015.6.1)

國論)'[18]을 발표하여 일본학계에서 이슈가 된 바 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삼한 및 삼국은 한반도 내의 본국이 아니라 일본열도 내에 존재했던 분국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중에서 가야가 오사카 지역에 세운 분국이 바로 임나였다는 것이다. 일본열도에 한반도 도래인이 만든 분국이 존재했다는 김석형의 견해는 임나일본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역시 일본 학계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연구자들은 과거의 부정적 역사관을 탈피하여 도래인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하기도 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서기』 오진기(応神紀)에는 백제로부터의 대규모 집단이주 기사가 있는데 최재석(1926~)에 의하면 역대 일본 사학자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왔다고 한다.[19]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한반도 도래인의 대규모 이주나 그들에 의한 고대 일본국가 건설에 관한 견해는 쉽게 수용될 것 같지가 않다. 오늘날 에가미나 김석형과 같은 견해는 주류 학계에서는 모습을 감추어 이제 재야학자의 몫이 된 듯하다.[20]

2.2 인류학적 연구

형질인류학적 관점의 도래인의 연구는 메이지(明治) 시대에 일본정부에 초빙된 외국인 학자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인의 선주민인 아이누와 한반도를 거쳐서 도래한 북방계 종족과 역시 한반도를 거쳐 도래한 남방계 종족이 혼합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벨쯔(Erwin von Baelz, 1849~1913)의 견해[21]가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의 하나인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는 일본민족의 선조는 석기시대에 한반도에서 기내(畿內)에 이주하여 아이누를 구축한 집단이었다는 견해[22]을 발표하였으며 이 집단을 '고유일본인(japanese

18) 1963년에『력사과학』이라는 학술지에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분국에 대하여」라는 논물을 발표했고 이에 『초기조일관계사』를 출간하였다. 金錫亨(1969)『古代朝日関係史』勁草書房, pp.1-484

19)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고 한다. ①고대 한국에서 일본에 항복한 포로, ②일본의 한 씨족의 조상, ③나라 없는 진한(신라) 유민, ④한 중국인(하타시[秦氏])의 조상, ⑤일본에 귀화한 낙랑·대방의 식민지의 인민, ⑥일본이 조선을 경영한 결과 일본에 귀화한 조선 사람, ⑦유략(雄略)왕 시대의 서화를 오진(応神)시대에 소급한 것, ⑧백제로부터의 이주민 기사는 모두 조작된 이야기. 崔在錫(2001)『日本書紀와 古代韓日關係史』一志社, p.65

20) 예를 들어 이시와타리 신아치로(石渡 信一郎) 등을 들 수 있다. 이시와타리 신이치로(2002)『백제에서 건너간 일본천황』지식여행, pp.1-468

21) E·v·ベルツ「日本人の起源とその人種学的要素」池田次郎·大野晋 編(1973)『論集日本文化の起源 · 5 日本人種·言語学』平凡社, pp.130-142(Erwin von Bealz(1883-1885) "Abstammung des jpanischen Volkes und seine ethnographischen Elemente", Die Koerperlichen Eingenshafeten der Japaner, Yokohama)

22) 鳥居龍藏(1975)『鳥居龍藏全集 第1卷』朝日新聞社, pp.504-505(「古代の日本民族移住發展」『歷史地理』28卷 5號, 日本歷史地理研究會, 1916)

proper)'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도리이가 도쿄제국대학을 사직(1924년)하자 황국사관을 신봉하는 국수주의 연구자가 인류학계를 주도하게 되면서 일본민족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하게 진화해왔다는 학설이 정설이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변형설(變形說)' 또는 '이행설(移行說)'로 불리며 무려 70년대까지 학계에 군림했는데 거기에는 일본인의 형성에 도래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도리이가 도쿄제국대학을 떠난 무렵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1924년 설립)에서는 오히려 도리이의 고유일본인설을 뒷받침하는 형질인류학적 연구가 추진되었다.[23] 이에 종사한 연구자들이 광복 후에 일본에 귀국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 중에서 고하마 모토쓰구(小浜基次, 1904~1970)는 60년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도래한 단두(短頭) 집단이 기내에 자리 잡고 일부는 간토(関東)까지 진출했다는 견해를 발표했으나[24] 학계에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그들과는 별도로 50년대에는 타이베이(臺北)제국대학에서 귀국한 가나세키 다케오(金関丈夫, 1897~1983)에 의해 그 당시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야요이(弥生)시대 초기의 인골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 한반도 도래인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그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도래한 집단의 기원이 한반도 북부에 있으며 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는데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하나는 북부 규슈(九州) 및 야마구치(山口), 긴키(近畿) 지방에 일시적으로 이주하여 원주민인 조몽인(繩文人)과 혼혈했으나 인원수가 적어 곧 조몽인에게 흡수되고 말았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야요이시대를 거쳐 고분시대까지 계속 도래한 결과 긴키 지방 주민의 체질을 변형시켰다고 한다.[25] 가나세키의 소위 '도래·혼혈설'은 처음에는 변형설에 밀렸지만 80년대부터 학계에 서서히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80년대에는 가나세키와 별도로, 변형설을 주장해 왔던 도쿄대학 인류학의 학통에서 도래설을 제창하는 연구자가 나타나 도래인 연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니하라 가자로(埴原和郎, 1927~2004)는 시뮬레이션 연구로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7세기 사이에 시베리아 기원의 도래인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총수는 무려 300만을 넘을 것이라는 가설을 발표하여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26] 나아가서 그는 도래 규모의 시대별

23) 예를 들어 上田常吉(1935)「朝鮮人と日本人の体質比較」東京人類学会 編『日本民族』岩波書店, pp.111-164

24) 小浜基次(1960)「生体計測学的にみた日本人の構成と起源に関する考察」『人類学研究』第7巻 第1-2号, 九州大学医学部 解剖学教室 人類学研究所, pp.56-65

25) 金関丈夫(1955)「弥生人種の問題」『日本考古学講座』4, 河出書房, p.249; 金関丈夫(1966)「弥生時代人」『日本の考古学』3, 河出書房, pp.467-469

26) Hanihara, Kazuro(1987)"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Migrants to Japan : A Simulative Study", 『人類学雑誌』95巻3号. pp.391-403

추계도 시도하여 야요이시대를 약 26만, 고분시대를 약 27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27] 후일 하니하라는 도래인 규모를 30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하향 수정했는데 도래 규모를 기존의 견해보다 훨씬 크게 추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 학설이 발표된 후, 변형설이 후퇴하고 도래설이 주류로 부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래인의 고지나 도래 규모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발표되었다. 흥미롭게도 고지를 시베리아, 상해, 중국 강남, 산둥반도(山東半島) 등 대체로 일본에서 먼 곳에서 찾는 견해들이 많아져[28] 오히려 한반도를 지목하는 연구자들이 소수파에 속하게 되었다.[29]

80년대에 들어와서 인류유전학이 발달되어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항체를 형성하는 면역 글로브린을 결정하는 Gm(감마 글로브린 마커)유전자를 통하여 일본민족의 기원을 바이칼호수 지역에서 찾는 견해,[30] 혈액 중의 단백질 유전자를 통해 일본인이 한국인·몽골인·티베트인과 같은 동북아시아 클러스터에 속한다는 견해,[31] 미토콘드리아DNA를 통해서 현대 일본인이 도래인한테 받은 DNA가 65%나 된다는 견해,[32] 단일염기다형성[33]을 통해서 현대 일본인은 조몬인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인의 혼혈이라는 견해[34] 등이 나왔다. 이처럼 대체로 인류유전학자들은 도래인을 한반도를 포함한 북방아시아에서 찾고 있으며 그 규모를 크게 보고 있다.

위와 같이 인류학에서도 일본인의 기원에 관해서 다양하고 상반된 학설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변형설 지지자는 거의 없으며 도래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헌 사학자나 고고학자에 비하면 대규모로 추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

27) 埴原和郎(1986)「骨から古墳人を推理する」森　浩一　編『日本の古代 5　前方後円墳の時代』中央公論社, pp.156-157

28) 下条信行(2014)「対談　列島初期の稲作の担い手は誰か」古代学協会『列島初期稲作の担い手は誰か』すいれん舎, p.291

29)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오가타 다카히코(小片丘彦)를 들 수 있다. 그는 가나세키의 학설을 지지하여 도래계 야요이인의 형질적 특징인 고안(高顔)·고신장(高身長)의 기원은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小片丘彦(1998)「朝鮮半島出土古人骨の時代的特徴」『鹿歯紀要』18, 鹿児島大学歯学部, p.7

30) 松本秀雄(1987)「免疫グロブリンの遺伝標識Gm遺伝子に基づいた蒙古民族の特徴　-日本民族の起源について」『人類学雑誌』95, 日本人類学会, pp.291-304

31) 尾本恵市(1995)「日本人の起源:分子人類学の立場から」『Anthropological Science』Vol.103 No.5, 日本人類学会, p.424

32) Satoshi Horai, Kumiko Murayama, Kenji Hayasaka, Satoe Matsubayashi, Yuko Hattori, Goonnapa Fucharoen, Shinji Harihara, Kyung Sook Park, Keiichi Omotof and I-Hung Pan(1996), “mtDNA Polymorphism in East Asian Popul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opling of Japan”, Am. J. Hum. Genet. 59, pp.585-588

33) DNA염기서열에서 하나의 염기서열(A,T,G,C)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

34) Japanese Archipelago Human Population Genetics Consortium(2012) “The history of human populations in the Japanese Archipelago inferred from genome-wide SNP dat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Ainu and the Ryukyuan populations” Journal of Human Genetics 57, pp.787-795

많다고 할 수 있다.

2.3 고고학적 연구

고고학 관점의 도래인 연구는 인류학자이면서 고고학자이기도 했던 도리이 류조로부터 시작된다.[35] 그는 1910년대에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한반도, 만주, 동몽고, 연해주에서 출토된 토기와 야요이토기의 유사성을 근거로 고유일본인이 한반도를 경유하거나 연해주에서 동해를 거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하였다.[36]

그런데 1930년대까지만 해도 야요이문화에서 중요시되어 있었던 것은 주로 청동기문화나 한대(漢代) 문화였으며 농경문화의 중요성은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리이 역시도 일본의 벼농사는 야요이시대가 시작한 후에 중국 남부에서 전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야마우치 수가오(山內清男, 1902~1970)는 농경문화를 야요이문화의 핵심적 문화로 파악하였으며[37]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고고학계를 주도했던 고바야시 유키오(小林行雄, 1911~1989)는 야요이시대의 특징으로서 금속기의 사용과 함께 농경문화를 들어 벼농사, 농구로서의 마제석부, 동검, 동모(銅鉾), 동탁(銅鐸), 지석묘, 옹관묘 등의 야요이문화가 한반도 도래인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1950년대 당시 인류학계의 정설이었던 '변형설'의 영향 때문에 도래인에 의한 야요이문화 전파를 인정하는 고고학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았다.[38]

그 당시는 가나세키의 도래·혼혈설이 주목 받았던 시기라 고고학에서도 도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변형설의 영향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근거를 내세워 도래·혼혈설에 이의를 제기한 고고학자도 있었다. 북부 규슈 유적에서 한반도계 야요이토기와 재래계 조몽토기, 한반도계 마제석기와 재래계 조몽식 타제석기가 공존한 상태에서 출토되었던 것이다.[39]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야요이문화의 형성에서 도래인의 위상을 낮게 평가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야요이문화는 한반도 도래인에 의해 이식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 토착인인 조몽인이 주체적, 선택적으로 한반도문화를 수용한 결과 조성되었다고 것이다.[40]

---

35) 春成秀爾(1990)『弥生時代の始まり』東京大学出版会, p.127
36) 鳥居龍藏(1975)『鳥居龍藏全集 第一巻』朝日新聞社, p.387(『有史以前の日本』磯部甲陽堂, 1918)
37) 山内清男(1939)『日本遠古之文化 補注付·新版』先史考古学会, pp.38-39
38) 小林行雄(1951)『日本考古学概説』創元社, pp.157-163
39) 森 貞次郎·岡崎 敬(1961)「福岡県板付遺跡」『日本農耕文化の生成』第一冊, 東京堂, pp.37-77
40) 岡崎 敬(1968)「日本における初期稲作資料-朝鮮半島との関連にふれて-」『朝鮮学報』第49輯, 朝鮮学会,

이러한 인식이 고고학계에 널리 퍼지면서 80년대에 하니하라의 대규모 도래설이 발표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41]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대체로 야요이시대의 도래를 소규모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야요이 초기의 유물에서 한반도계 토기가 10% 밖에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도래인의 인원수도 역시 당시 인구의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42]

위에서 살펴본 논의는 농경 시작기인 야요이시대의 도래인에 관한 것이었는데 고분시대(4세기~7세기)의 논의에 대해서 고고학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황국사관이 불식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모리 고이치(森 浩一, 1928~2013)는 전후의 고고학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을 비판한 바 있다. 즉 한편에서는 천황의 능에 대한 검토를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진(崇神) 능이나 닌토쿠(仁徳) 능 등의 연대를 확고부동한 기점으로 삼아 고분 전체의 편년을 연구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고학자들은 전전(戰前)에 만들어진 고대사 체계에 고고학적 자료를맞추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43] 물론 모리와 같은 시각을 지니고 있는 연구자는 소수파에 속한다.

최재석 역시도 대부분의 일본 고고학자들은 야요이문화가 한반도에서 북부 규슈로 전파되어 다시 동쪽으로 전파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분에 관해서는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즉 고분은 나라(奈良) 지방을 중심으로 기내에 돌연히 나타나 이것이 야마토 정권에 의하여 지방으로 전파되었다는 도식, 즉 고분기내발생설→국내통일→전국에의 고분전파라는 일련의 방정식이 학계의 정설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44]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 축적된 고고학 성과를 토대로 고분시대가 왜의 한반도 침공의 역사가 아니라 백제·가야·왜를 둘러싼 정치적 변동과 상호작용의 역사로 파악하는 시각[45]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편이다. 가메다 슈이치(亀田修一, 1953~)는 그동안 누적된 고분시

---

p.84; 森 貞次郎(1966)「弥生文化の発展と地域性1 九州」『弥生時代』日本の考古学３, 河出書房, pp.32-80

41) 예를 들어 하니하라는 초기 농경사회의 인구 증가율 한해 0.2%로 추정하였지만 이것은 농경사회가 안정기에 들어간 서기 1,000년대의 수치였다. 그러나 조몽-야요이의 이행기는 훨씬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도래인의 유입이 없이도 충분히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田中良之・小澤佳憲(2001)「渡来人をめぐる諸問題」『弥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九州大学, pp.17-18

42) 篠田謙一(2007)『日本人になった先祖たち -DNAから解明する多元的構造』日本放送出版協会, p.185

43) 森 浩一(1981)『考古学ノート: 失われた古代への旅』社会思想社, pp.58-86

44) 崔在錫(1992)「日本列島의 古墳群과 韓·日 關係史」『精神文化研究』47號,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147-148

45) 朴天秀(2007)『伽耶と倭 -韓半島と日本列島の考古学-』講談社, pp.154-165

대의 한일 문화교류를 도래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제Ⅰ기(3세기~4세기 말)에는 주로 가야 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했고 초기에는 교류의 중심이 규슈지역에 있었지만 후기에는 긴키 지방으로 옮겨갔다. 제Ⅱ기(4세기말~5세기말)는 고구려의 남하에 따라 가야 사람이 왜로 이주하게 되면서 가야의 기술·지식·정보·물품 등이 일본의 지배층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5세기 중엽부터는 왜의 교섭상대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백제로 바뀌었다. 제Ⅲ기(6세기초~6세기말)에는 금관가야의 멸망(532)과 대가야의 멸망(562)을 계기로 왜는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고고학적으로 도래인의 흔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제Ⅳ기(6세기말~710)는 국가차원에서 민간차원까지 기본적인 교류 대상은 한반도였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극히 드물지만 견수사(遣隨使)나 견당사(遣唐使)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섭하게 되었다.[46] 이처럼 한일관계사를 왜의 한반도 침공의 역사로 파악하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래인을 외부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견해와 다른 바가 없다.

이처럼 고고학계에서는 인류학계에서 제기된 고분시대의 대규모 도래에 관한 논의가 일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고고학자가 야요이시대의 도래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것과 대조적이다. 고고학에서는 고분시대의 한일관계사를 기본적으로 문화전파의 시각에서만 설명하려고 한다.

3.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

3.1 야요이시대의 도래인

다음은 구체적으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편년체로 제1전시실에서 제6전시실로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반도 도래인과 관련된 것은 제1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제1전시실은 다시 Ⅰ[일본문화의 여명(日本文化のあけぼの)], Ⅱ[벼와 왜인(稲と倭人)], Ⅲ[장방후원분 시대(前方後円墳の時代)], Ⅳ[오키노시마(沖の島)][47], Ⅴ[율령국가(律令国家)]의

46) 亀田修一(2011)「考古学からみた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交流 -古墳時代の西日本地域を中心に-」『専修大学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第5号, pp.125-127

47) 북부 규슈와 대마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현해탄(玄海灘)의 고도(孤島)이며 일본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해양교통의 요소로써 4세기 후반부터 600년에 걸쳐 항해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졌다.

다섯 가지 코너로 나눠져 있다. 본 분석에는 그 중 야요이시대부터 고분시대에 해당되는 Ⅱ, Ⅲ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Ⅰ은 선주민의 역사인 조몽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Ⅳ는 항해와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진 섬으로서 한일관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적, 기능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Ⅱ코너에서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서기 3세기의 야요이시대[48]를 전시하고 있으며 벼가 대륙에서 일본으로 전파되고 선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 텍스트와 음성안내로 된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정보전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야요이시대의 시작] 북부 규슈의 돌도끼, 벼 이삭을 따는 석기, 쌀 등을 모아두는 항아리는 한반도 남부의 물건을 닮아 있다. 호(濠)에서 둘러싼 방어촌락이나, 큰 돌을 묘비로 한 무덤(지석묘)도 공통된다. 한편 취사에 사용하는 단지나 타제석기는 조몽시대의 전통을 남기고 있다. 야요이시대는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전해준 본격적인 도작문화와 조몽시대부터 내려오는 강한 전통이 결합되어 시작하였다.

② [세계 속의 야요이문화] 야요이문화는 조몽문화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국시대에서 한대(漢代)에 걸친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의 강한 영향 하에 있는 주변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다. 동탁(銅鐸)·동모(銅鉾) 등의 청동 제기의 발달도 중국 남부의 청동북의 발달과 비슷하다. 중국황제에 사신을 보내 규슈의 유력자가 얻은 '漢委奴國王'인도 남남성 石寨山의 왕이 수여받은 '滇王之印'에 대비할 수 있다.

③ [벼와 왜인] 한반도에서 수전도작기술을 가지는 사람이 일본열도에 건너 와서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생 략) 야요이시대에는 금속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세기에는 서일본(西日本)이 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행한다. 벼농사를 시작해서 100년이나 전쟁이 시작되며 다시 500년 정도 지나 서서히 생활이 안정되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회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 받는 자로 나눠져 계층사회의 길로 나갔다. 그들은 대륙과 자주 교류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서일본 사람들을 왜인으로 불렀다. 그들은 대륙과 융성하게 교류를 해서 국제사회에 들어갔다. 지금의 일본의 사회·문화의 기초는 야요이시대에 시작되었다.

48) 야요이시대는 기원전 3세기 내지 5세기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정설이었는데 역사민속박물관 연구팀은 '탄소14년대 측정법'이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시작을 기원전 10세기까지 앞당겼으며 이 박물관의 전시도 이를 따르고 있다.

④ [야요이인의 도구] 야요이시대에는 칼끝까지 나무로 된 괭이·가래 등의 농구나 청동·철·돌로 된 검·창·화살촉 등의 무기가 새로 등장하였다. 청동기는 처음에는 무기와 제기로 사용되었다. 철기는 처음에는 석기와 함께 사용되었다가 2세기가 되면 거의 석기를 대신하였다. 청동기·철기의 원료의 대부분은 한반도나 중국에 의지하고 있었다.

⑤ [음성 안내 117] 최근 연구에 의하면, 중국 연(燕)나라에서 주조된 쇠도끼의 파편을 입수하여 그것을 갈고 작은 칼과 같은 도구로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 알게 되었다. 가열한 철을 두드려 만든 철기는 기원전 2세기경에 한반도에서 전해졌으며 서기 1세기에는 널리 보급되면서 석기는 점차 줄어갔다.

⑥ [제기의 비대화] 동탁이나 동검·동모(銅矛)·동과(銅戈)형 제기 등 야요이시대의 청동기는 한반도에서 발달된 마령(馬鈴)이나 무기와 같은 실용품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대형화와 장식화가 현저하게 진행되며 본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⑦ [야요이인의 특징] 북부 규슈에서 긴키 지방·도카이(東海) 지방 서부에 거주했던 야요인의 뼈는 조몽인 보다도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다. 이에 비해 서남 규슈나 간토(関東) 지방의 야요이인의 뼈는 조몽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식생활이나 생업의 변화만으로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아마도 조몽시대 후반기와 병행하는 시기의 한반도에서 출토된 인골은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다. 따라서 서일본의 야요이인의 형질은 조몽인과 한반도 남부 사람들과의 혼혈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⑧ [음성 안내 118] 조몽인과 야요이인의 신체 특징 차이를 골격을 비교해서 전시하고 있다. 신장이나 머리와 얼굴 모양, 팔다리의 길이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야요이인은 키가 크지만 다리가 짧고 조몽인은 키가 작고 손발이 길어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왼쪽의 두 사람은 야요이인과 같은 시기의 한국인의 남녀로써 야요이인과 속 닮았다.

⑨ [야요이인·조몽인과 무문토기 시대인과의 비교] 북부 규슈와 야마구치현 출토의 야요이 인골은 조몽인골보다도 ⓐ남여 모두 3㎝정도 높다. ⓑ얼굴이 길고 비근은 들어가지 않고 논 위의 융기가 약하다. ⓒ안구가 들어가는 구멍 형태나 각도가 다르다. 이러한 특징은 같은 시기의 한반도 사람들과 공통된다. 야요이시대가 시작했을 때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도래하여 조몽인과 혼혈해서 규슈·시코쿠(四国)·혼슈(本州)의 야요이인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전시내용에서는 문헌사학의 연구 성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①~⑥는 고고학, ⑦~⑨는 형질인류학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이들을 앞에서 살펴본 도래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서 도래인의 고지, 도래의 규모, 도래인의 역할 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도래인의 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분명히 도래인의 고지로서 한반도를 지정한 것으로 ①과 ③의 한반도(남부)에서 도래인이 도작문화를 전해졌다는 언급을 들 수 있다. 도작문화를 중심으로 한 야요이문화의 기원을 한반도에서 찾는 것은 오래전부터 일본 고고학의 정설이었던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그리고 ⑦과 ⑨에서는 가나세키의 도래·혼혈설에 따라 서일본(西日本)의 야요이인이 조몽인과 한반도 사람들의 혼혈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도래인의 고지로서 명확히 한반도를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⑧은 야요이인과 같은 시기의 한반도의 무문토기인과의 형질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으로[49] 역시 도래인의 고지가 한반도임을 시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인류학자 사이에서는 도래인의 고지를 시베리아, 산둥반도, 장강 유역 등에서 찾아 한반도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가나세키의 견해에 따라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가나세키설을 지지한 연구자가 많았던 고고학계의 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이와 반대로 도래인의 고지가 한반도임을 왜곡하거나 희석시키는 언급도 있다. ②의 야요이문화가 조몽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중국의 책봉체제 하에서 중화문화권의 주변문화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거나 중국 남부에 기원을 둔 청동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1930년대 이전의 학계에서 야요이문화의 본질을 농경문화가 아닌 청동기문화나 한대 문화에서 찾았던 시대의 인식과 유사하며 한반도보다 중국과의 친연성이 강조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 도래인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도래인의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⑦과 ⑨의 도래인과 조몽인의 혼혈의 결과로 서일본 사람들의 형질이 변했다는 언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도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③의 야요이인이 전쟁기에서 안정기에 진입한 시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언급은 초기의 도래가 소규모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반된 언급은 대규모 도래를 주장하는 인류학자와 소규모 도래를 주장하는 고고학자의 견해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체로 고고학의 입장에 입각하여 도래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쪽에 기울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전시에서는 도래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며 대신 한반도 문화의 전파에 초점

49) 여기서 전시되어 있는 야요이인 인골(모형)은 야마구치(山口)현 도이가하마(土井が浜) 유적 130호 남성 인골과 311호 여성 인골이며 한반도 인골은 경남 늑도 유적에서 출토된 48호 남성 인골과 8호 여성 인골이다.

을 맞추어서 기술하고 있다. ④의 청동기·철기 원료를 한반도나 중국에서 구해왔다는 내용, ⑤의 철기가 기원전 2세기경에 한반도에서 전해졌다는 내용, 그리고 ⑥의 한반도에서 전해진 마령이나 무기가 일본에서 제기로서 대형화 및 장식화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래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①~⑥에는 도작문화·청동기 철기·묘제와 같은 야요이문화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타제석기를 사용하며 수렵·채집 생활을 모체로 한 조몽문화에 비하면 보다 선진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①에서는 야요이문화가 한반도의 도작문화와 조몽문화의 결합체로 언급되면서 양자의 관계가 마치 동등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조몽인이 도래문화를 주체적, 선택적으로 수용했다와 같은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③의 야요이인이 일본열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다음에 국제사회에 참여했다는 언급에서 마치 도래인이 일본에 이주한 후 일본을 크게 발전 시켰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⑦과 ⑨에서 알 수 있듯이 야요이인은 도래인과 조몽인의 혼혈로 인식되어 있다. 즉 야요이인은 한반도 도래인이나 그들의 후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으로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도래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조몽사회에 도작문화를 비롯한 도래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파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야요이인은 어디까지나 도래인 자체가 아닌 일본인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이가 제창한 고유일본인처럼 한반도 도래인이라는 정체성이 뒤따르지 않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2 고분시대의 도래인

Ⅲ [전방후원분의 시대] 코너에서는 많은 고분이 조성되었던 3세기~7세기의 고분시대에 대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고분의 형태나 출토품을 통해 지역 간 및 동아시아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정보전시는 다음과 같다.

① [음성 안내 129]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일본열도에서는 고분이 만들어졌다. 다른 시대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정정하게 매장하는 풍습이 유행한 이 시대를 고분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 코너에서는 전방후원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태의 고분을 들어서 그 등장과 확대로부터 고대 일본열도에서 국가조직이 형성되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 시대의 일본열도는 동아시아에서 고립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나 중국대륙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 물건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

② [대륙문화의 새로운 물결] 5세기에는 그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마구가 고분의 부장품에 들어갔다. 또한 한반도의 도질토기의 영향을 받은 스에키(須恵器)의 생산이 시작된다. 규슈 북부에서도 역시 한반도의 영향으로 기존의 수혈식 석실에 입구와 통로를 만든 횡혈식 석실이 만들어진다.(생략) 기마문화의 수용은 4세기 후반 이후의 고구려 기마군단과 직접 싸우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전란에서 달아난 많은 도래인이 다양한 기술이나 문화를 가져왔다.

③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고분] 중국에서는 춘추시대 후기(기원전 5·6세기) 경부터 대형 분구묘(墳丘墓)의 조영이 시작하여 진한제국의 성립(기원전 2·3세기)하면서 정점에 달한다.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는 백제나 신라 등 부족동맹 국가들이 성립된 4세기경부터 대규모 분구묘가 출현하였다. 일본열도에서도 같은 시기에 고분시대를 맞이했는데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고분이 조영되었다.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그 수 또한 많은 것이 주목된다.

④ [고분 출현 전야] 고분은 어느 날 잡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야요이시대부터 방형(方形) 기타 형태의 분구묘가 조영되고 있었지만 고분출현 전야인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말기까지 각지에 상당히 큰 규모의 고분이 출현하였다.

⑤ [긴키 지방의 분구묘] 후대에 거대한 고분이 많이 조영된 나라현(奈良縣)이나 오사카부(大阪府)의 고분출현 직전의 분구묘 실태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 단 나라분지(奈良盆地) 동남부에서는 부정원형(不整円形) 주구(主丘)에 짧은 돌출부가 달린, 후대의 전방후원분에 연결되는 분구묘가 몇 개 조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이 도래인과 관련된 언급은 ①~⑤뿐이며 그 양도 매우 적다. 게다가 모두가 고고학적 연구 성과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 문헌사학이나 인류학의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선 도래인의 고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사실 도래인에 관한 언급은 ②의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도주하여 도래인이 일본으로 이주했다는 언급 한 군데 밖에 없다.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도래인은『일본서기』오진기(応神紀)에 기록된 백제인의 대규모 이주 기사에 해당되지만 백제인으로 분명히 명기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래인의 이주가 아니라 문화전파나 교류 차원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①은 당시의 일본열도가 동아시아에서 고립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나 중국대륙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는 언급이 있다. 이러한 문화 교류의 매개자로서의 도래인의 존재를 상정하면 그 고지는 한반도나 중국대륙이 된다. 이러한 기술방식에 밑바탕에는 앞에서 본 야요시시대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거론하면서 도래인의 고지가 한반도임을 왜곡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문화전파 차원의 기술인데 ②에는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스에키(須恵器)나 수혈식 석실 및 횡혈식 석실이 만들어졌다는 언급이 있다. 정황을 보았을 때 이와 관련되는 한반도 내의 지역은 가야 및 백제임이 분명하다. 최근 가야·백제와 왜의 관계성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국가명을 명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한반도로만 기술되어 있다.

도래의 규모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긴키 지방의 사람들의 형질을 변형시킬 정도의 규모', '270만 명이나 되는 규모'와 같은 형질인류학의 견해, '일본인의 10~20% 정도는 귀화인이 선조'와 같은 문헌사학의 견해, '현대 일본인이 한국인과 중국인의 도래인에서 받은 DNA를 65%'라고 하는 인류유전학의 견해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대규모 도래에 관한 견해는 극단적인 견해로서 배제하는 것이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입장이자 일본학계의 보편적인 입장인 것 같다.

또한 도래인의 역할에 관련된 것은 ②의 전란에서 달아난 사람들에 의해 많은 한반도의 기술이나 문화를 가져왔다는 언급이 전부이다. 도래인이 난민이란 비정상적인 신분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그 부산물로서 기술이나 문화가 전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가미민족설과 같이 도래인의 일본국가 건설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문화전파의 매개자로서의 역할마저 제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가야·백제와 왜의 교류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도래인의 역할이 과소평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Ⅲ [전방후원분의 시대] 코너에서는 고분시대 전반에 걸쳐 전시하기보다는 전방후원분을 중심으로 고대일본의 국가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전시되고 있다. 거기에는 전방후원분이야말로 고분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는 역사관이 깔려 있는 듯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③에서는 한반도와 비슷한 시기에 고분문화가 형성된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반도 고분과 일본 고분의 계통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④에서는 전방후원분이 야요이시대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을 지적하고 ⑤에서는 전방후원분이 고대 일본국가의 발상지인 나라분지에 기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전방후원분이 일본 내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고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코너에서는 한반도 도래인이 일본역사에 개입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이 고분시대에는 한반도와도 교류를 인정하면서도 도래인의 대규모 이주나 정치적 역할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전반후원분이 상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와 관계없는 일본만의 고유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고분시대의 전모를 규명한다기보다 고분기내발생설→국내통일→전국에의 고분전파라는 방정식에 고고

학적 자료를 맞춰왔으며 역사민속학박물관 역시도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고분시대가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가운데 한반도 도래인이 제대로 평가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4. 마치며

본 연구는 공식적 지식체계로서의 속성을 지닌 일본 국립역사박물관의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전시를 통해서 일본 학계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래인 연구에는 문헌사학, 인류학, 고고학 등의 분야가 관여해 왔는데 근대 이후 이들 학문분야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각각 독자적 연구를 추진해왔다. 문헌사학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한반도 도래인의 대규모 이주와 도래인에 의한 국가건설에 관한 학설들이 제창되었으나 이러한 견해는 비주류 학설로서 학계에 널리 수용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황국사관이 불식되었다고는 하지만 도래인의 위상을 크게 평가하여 일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견해를 배척하려는 학계의 풍토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인류학계 역시도 오늘날까지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학설, 특히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이주에 관한 학설들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제창되었는데 늘 이에 반대하는 학설들이 나타나 중심적인 학설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도래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도래의 규모는 크게 잡는 한편에서 도래인의 고지를 한반도 외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고고학에서는 야요이시대와 고분시대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야요이시대에 대해서는 도래인의 고지를 한반도에서 찾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도래의 규모 자체는 작았으며 일본열도 내에서 선주민인 조몽인과 혼혈해서 번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고분시대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대 일본국가의 기원이 기내에서 발생했다는 신념 아래 국수주의적 역사관에 고고학적 자료를 맞추는 연구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분시대 도래인의 위상이 부당하게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기존의 한반도 도래인 연구는 분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도래인의 진상규명이 어려운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되어왔으며 몇몇 연구자들만이 이 문제에 정면으로 상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습성을 반영하고 있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도래인

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도래인의 고지에 관해서는, 야요이시대의 도래는 인류학에서 자주 거론된 시베리아, 산둥반도, 중국 강남지역 등에서 고지를 찾는 학설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고분시대의 경우는 도래인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으로서만 묘사되고 있을 뿐 그 고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도래의 규모에 관해서, 고고학적 견해를 반영해서 야요이시대의 도래는 소규모였지만 일본열도에서 선주민과 혼혈한 다음에 번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고분시대의 도래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도래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야요이시대의 경우는 한반도 문화의 전파 매개체로서, 또한 조몽인과 혼혈하여 야요이문화를 만든 주체로서도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야요이문화는 조몽문화와 그보다 앞선 한반도 문화의 혼합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양자가 동등한 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고분시대의 도래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본질적으로 전쟁 피난민이었으며 부산물로서 한반도 문화를 일본에 전파시킨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처럼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도래인 관련 전시내용은 고고학의 성과에 편중해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고고학계는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문화적 계보관계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전시에서는 구태의연한 전시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고고학자들이 미약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고분시대를 기내에 근거지를 두는 왜 왕권의 중앙집권적 사회의 형성과정으로 연구해왔다는 지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래인의 위상을 무시하여 일본 고분의 독자성과 이를 근거한 왜 정권의 발전에만 전시공간을 할애하는 전시방식은 과거의 역사관을 불식하지 못한 일본학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학계에 기마민족설과 같은 도래인에 의한 일본 고대국가 수립설이 수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고학적 물증이나 논리적 정합성에 앞서 이와 같은 학계의 인식과 패러다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參考文献】

세키네 히데유키(2011)「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일본민족 기원론-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동북아문화연구』 제29집, 동북아문화학회
_____(2011)「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와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의 일본민족 기원론 -한민족(韓民族)의 민족이동을 중심으로-」『동북아문화연구』제27집, 북아시아문화학회
_____(2007)「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연구와 패러다임」『민족문화연구』4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시와타리 신이치로(2002)『백제에서 건너간 일본천황』지식여행
崔在錫(2001)『日本書紀와 古代韓日關係使』一志社
_____(1992)「日本列島의 古墳群과 韓·日 關係史」『精神文化研究』47號,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石田英一郎·岡正雄·八幡一郎·江上波夫(1949)「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 對談と討論」『民族學研究』第13巻 第3号, 日本民族協会
上田常吉(1935)「朝鮮人と日本人の体質比較」東京人類学会 編『日本民族』岩波書店
上田正昭(1967)『歸化人』中央公論社
江上波夫(1967)『騎馬民族国家』中央公論社
岡崎 敬(1968)「日本における初期稲作資料-朝鮮半島との関連にふれて-」『朝鮮学報』第49輯, 朝鮮学会
小片丘彦(1998)「朝鮮半島出土古人骨の時代的特徴」『鹿歯紀要』18, 鹿児島大学歯学部
尾本恵市(1995)「日本人の起源: 分子人類学の立場から」『Anthropological Science』Vol.103 No.5, 日本人類学会
金関丈夫(1966)「弥生時代人」『日本の考古学』3, 河出書房
_____(1955)「弥生人種の問題」『日本考古学講座』4, 河出書房
亀田修一(2011)「考古学からみた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交流 -古墳時代の西日本地域を中心に-」『専修大学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第５号
喜田貞吉(1979)『喜田貞吉著作集 第８巻 民族史の研究 』平凡社(「日鮮兩民族同源論」『歷史と民族』第6卷 第1號, 1920)
金錫亨(1969)『古代朝日関係史』勁草書房
国立歴史民俗博物館(2014)『国立歴史民俗博物館ガイドブック』一般財団法人　国立歴史民俗博物館振興会,
小浜基次(1960)「生体計測学的にみた日本人の構成と起源に関する考察」『人類学研究』第7巻 第1-2号, 九州大学医学部 解剖学教室 人類学研究所
小林行雄(1951)『日本考古学概説』創元社
篠田謙一(2007)『日本人になった先祖たち -DNAから解明する多元的構造』日本放送出版協会
下条信行(2014)「対談 列島初期の稲作の担い手は誰か」古代学協会『列島初期稲作の担い手は誰か』すいれん舎
関晃(2009)『帰化人 -古代の政治経済·文化を語る』講談社(至文堂, 1956)
高田貫太(2012)「古墳時代の日韓関係史と国家形成論をめぐる考古学的整理」『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70集
田中史生(2005)『倭国と渡来人 -交錯する「内」と「外」-』吉川弘文館
田中良之(2014)「いわゆる渡来説の成立過程と渡来の実像」古代学協会 編『列島初期稲作の担い手は誰か』すいれん舎
デビット·ディーン(David Dean)(2004)『美術館·博物館の展示　理論から実践まで』丸善
鳥居龍藏(1975)『鳥居龍藏全集 第１卷』朝日新聞社(「古代の日本民族移住發展」『歷史地理』28卷 5號, 日本歷史地理研究會, 1916;『有史以前の日本』磯部甲陽堂, 1918)
埴原和郎(1986)「骨から古墳人を推理する」森 浩一　編『日本の古代 5　前方後円墳の時代』中央公論社
春成秀爾(1990)『弥生時代の始まり』東京大学出版会
朴天秀(2007)『伽耶と倭 -韓半島と日本列島の考古学-』講談社

平野邦雄(2007)『帰化人と古代国家』吉川弘文館
末松保和(1949)『任那興亡史』大八洲史書
松本秀雄(1987)「免疫グロブリンの遺伝標識Gm遺伝子に基づいた蒙古民族の特徴-日本民族の起源について」『人類学雑誌』95, 日本人類学会
森 浩一(1981)『考古学ノート: 失われた古代への旅』社会思想社
森 貞次郎·岡崎敬(1961)「福岡県板付遺跡」『日本農耕文化の生成』第一冊, 東京堂
森 貞次郎(1966)「弥生文化の発展と地域性1九州」『弥生時代』日本の考古学3, 河出書房
山内清男(1939)『日本遠古之文化 補注付新版』先史考古学会
E·v·ベルツ「日本人の起源とその人種学的要素」池田次郎·大野晋 編(1973)『論集 日本文化の起源·5 日本人種·言語学』平凡社(Erwin von Bealz(1883-1885) "Abstammung des jpanischen Volkes und seine ethnographischen Elemente" Die Koerperlichen Eingenshafeten der Japaner, Yokohama)
Hanihara, K(1987)"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Migrants to Japan : A Simulative Study", 日本人類学会, 『人類学雑誌』95巻 3号
Japanese Archipelago Human Population Genetics Consortium(2012) "The history of human populations in the Japanese Archipelago inferred from genome-wide SNP dat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Ainu and the Ryukyuan populations" Journal of Human Genetics 57, pp.787-795
Satoshi Horai, Kumiko Murayama, Kenji Hayasaka, Satoe Matsubayashi, Yuko Hattori, Goonnapa Fucharoen, Shinji Harihara, Kyung Sook Park, Keiichi Omotof and I-Hung Pan(1996), "mtDNA Polymorphism in East Asian Popul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opling of Japan", Am. J. Hum. Genet. 59, pp.585-588
https://ja.wikipedia.org/wiki/%E6%B8%A1%E6%9D%A5%E4%BA%BA(검색일, 2015.6.1.)
https://ja.wikipedia.org/wiki/%E9%A8%8E%E9%A6%AC%E6%B0%91%E6%97%8F%E5%BE%81%E6%9C%8D%E7%8E%8B%E6%9C%9D%E8%AA%AC(검색일 2015.6.1)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要旨〉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

본 연구는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일본 이주를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계의 인식상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동안 일본학계에서는 문헌사학, 인류학, 고고학 등에서 도래인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학설이 나왔으나 학계에 수용되지 않았다. 이 박물관의 전시에는 상대적으로 고고학계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역시 고고학계의 한반도 도래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고고학계는 도래인의 고지(故地)를 한반도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래의 규모를 가능한 한 소규모로 추정하고 도래인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군국주의 시대의 역사관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Ancien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s presented by the exhibition at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how Ancien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Japan are being explained in the exhibi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and shall consider recognatory problems of the explanations. Up to now, studies abou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promoted Japanese academics in the fields of history,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Theories which esteem the status of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highly had come out in its process, but these ware not accepted widely by scholars. Views from the archaeology world were relatively reflected by the exhibition of this museums. The recognition abou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rchaeology world was reflected just as it is expected and intended to be. Archaeologists tend to seek the Korean peninsula as the home land of ancient immigrants to Japan. But also other archaeologists tend to presume the immigration as small scale as possible and underestimate the role of immigrants from peninsular Korea. This tells us ultimately that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at was hel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Militarism could not be swept off completely.